

## 출생 전후 사망률이 높아진다

19. 미숙아를 낳을 확률이 높다.

**임** 신부가 흡연하면 미숙아가 태어날 확률이 높다.

미숙아가 태어나는 이유는 니코틴이 카테콜라민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켜 교감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혈관수축을 일으켜 충분한 피(영양)가 태아에 미치지 못하여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기 때문이다. 또 일산화탄소가 산소를 운반하는 혈색소(헤모글로빈)와 강력히 결합되어 산소부족 현상을 일으키고 혈관내막 기능을 악화시킴으로 태아에 충분한 제 조건이 미치지 못하여 미숙아가 태어난다.

태아의 체중이 2500gm보다 낮으면 미숙아라고 하는데 미숙아는 사망률이 대단히 높다. 담배 피우는 어머니가 미숙아를 낳을 확률이 2배나 높다.

20. 출생전후 사망률이 높아진다.

임신부가 흡연할 경우 전치태반, 태반조기 박리, 조기파막 등의 위험이 높아진다. 아기의 출생전후 사망률이 높아지며 어머니도 위험에 처할 수 있고, 자연유산할 확률도 높아진다.

또 임부의 흡연으로 태어난

아기는 유아 돌연사 증후군을 일으킬 위험도가 50%나 증대한다.

21. 어린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다.

간접흡연을 하게 되는 어린이는 모든 세포와 조직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 어른보다 더욱 해를 입게 된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피해는 커진다.

어린이의 상기도 감염(감기, 기침, 기관지염 및 폐렴)의 감염률이 2배 높아진다. 양친부모가 모두 흡연하는 경우는 부모 중 한 사람이 흡연하는 경우보다 그 감염률은 더 높아진다.

또한 흡연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생후 1년내에 기관지염이나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더 많을 것이라고 한다. 만성기침 또한 더 많이 발생한다.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할 확률도 70%나 더 높아진다.

자녀들에게 호흡기질환을 자주 앓게 하는 것은 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호흡기 질환의 이환율을 높게 할 수 있다고 한다.

어린이의 천식과 부모의 흡연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다른 이유로 어린이가 천식에

걸렸을 때에도 부모가 담배를 끊으면 천식이 많이 완화된다.

22. 어린이 신장발육과 지능발진에 지장을 준다.

센트 토마스 병원의 연구팀의 연구에 의하면 흡연 가정 어린이의 신장이 1cm 작으며 가정내 흡연자의 인원수와 어린이의 신장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했다. 임신중 흡연하면, 그 자녀는 비흡연자의 자녀에 비해 독서능력이 뒤지고 다동경향이 강하다는 보고도 있다.(펜실베이니아의 R.Naeye 박사).

이는 모친의 흡연으로 태아의 산소공급이 결핍되고 그것이 행동 및 정신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하는데, 연구에 의하면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7세아를 비교했을 때 흡연자의 어린이의 독서능력은 3~4%, 주의력은 2% 뒤졌고 한편 운동도나 격정도의 테스트에서는 2%나 높은 결과를 보였다.

또 임신중의 흡연은 태아의 학습과 기억능력을 손상시킨다는 실험연구가 있다.

흡연하는 어머니의 어린이는 그렇지 않은 어머니의 어린이 자녀보다 폐발육이 느리는 등 폐 기능에 큰 지장을 받는다. 